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북한 핵실험의 치밀한 계획과 즉흥적인 결단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김 제1위원장은 2016년도 북한이 나아갈 방향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인민생활 문제를 국사 가운데 제일 국사라 한 표현에 잘 나타난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순으로 배열했다. 지난 4년 동안 정치·군사 분야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는 판단하에 '문제는 경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5월 초 제7차 당대회까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사만 있고 대화 제의는 없다. 남측의 통일외교를 흡수통일외교로 비판하고 한미군사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한다. 남북관계 장애물들에 대해 비판은 하고 있지만 전제조건·선결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민족문제·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해 맞대응하겠다는 결의도 없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화 제의도 없다.

올해가 미국의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비핵화든 평화협정이든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듯하다.

북한은 오는 5월 초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출범 원년을 빛내기 위한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다.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구호하에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경제개혁 조치의 확대가 예상되었다.

북한의 장마당은 전국적으로 4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따리 장사에서 점차 조직적인 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당·정·군 고위간부들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겠지만 중간간부들은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군대는 당적 지도의 강화와 함께 정치사상의 강군화, 도덕의 강군화, 전법의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 등 4대 강군화노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청년조선의 구호하에 체육 중시, 인민 중시 정책을 통하여 사회주의 문명강국에 속도를 낼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5월초 제7차 당대회까지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지진파의 강도를 볼 때 증폭핵분열 실험에 가까운 듯하다. 준비는 친밀하게 했지만 결단은 즉흥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2월 10일 수소폭탄 폭음 운운하였다. 12일 모란봉악단이 중국공연을 취소하고 철수하였다. 15일 당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월 3일에 핵실험에 대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최후 명령을 하달한 후 6일에 핵실험이 단행되었다.

이번 핵실험의 직접적인 배경은 북중관계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와 존엄을 무시했다는 판단하에 모란봉 악단 철수와 연이어 핵실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목표 겨냥은 미국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핵보유국의 동등한 지위에서 핵과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는 듯하다.

향후 남북관계는 장기 경색이 예상된다. 북한은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이미 확장을 마무리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맞서지만 내부적으로 당대회의 축포용으로 이용할 듯하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다. 한미동맹, 한중협력, 남북대화의 균형을 통해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전략적 접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

종교칼럼

화이부동(和而不同)

연 광 스님
증심사 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어느덧 무상한 세월은 시간의 건반을 두드려 병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떠오르는 해는 어제와 오늘이 새삼 다르지 않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그 강렬한 태양을 보며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해의 답답했던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되리라는 희망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들 생각은 늘 바람직한 소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항상 내일을 보며 살기 때문에 오늘은 늘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늘 욕구불만과 남보다 더 갖고 싶은 생각에 나보다 못가진자 와 나보다 어려운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불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지난해와 별개 다를 바가 없는 한해가 될 것 입니다.

올 병신년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어, 유독 정치권이 시끄럽고, 요란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빈곤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할 정치인들이 기득권 싸움에 빠져 더욱더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 정서를 불안하게 하는 느낌도 듭니다.

옛 공자님의 말씀에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이불화(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면서도 같지 않고, 소인은 같음에도 화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군자의 마음은 타인과 더불어, 서로 화목하고, 조화롭되, 참된 자기의 본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인의 마음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익이 된다 싶으면, 떼지어 몰려가고, 시대흐름에 편승하려고 합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당(黨)을 만들고, 패로 갈려 서로 헐뜯고 싸우며, 이해관계나 권력에 따라 이합집산하기 때문에 참된 자기본성에 어긋나더라도 이익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유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올바르게 가려면 다양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도 어느 특정 지역의 여당, 야당의 독식 속에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조화가 되어 서로 상생하는 정치가 돼야 합니다. 마치 다양한 다른 악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향악단과 같고, 서로 다른 다양한 꽃과 나무가 모여 아름다운 산과 숲을 이루는 자연의 이치를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우리사회도 이와 같이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기 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문 종 민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붉은 원숭이 해인 올해는 나에게도 의미 있는 해인 것 같다. 어렵고 처참한 시기에 태어나 원숭이해를 다섯 번이나 지냈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화가 채 가시기 전에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우리의 세대는 청·장년기도 매우 암울했다.

그 시절 '무엇이 진실인지 혼돈스러운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라는 주제로 갑론을박하다 결국 '우리는 지지리 복도 없어'라는 말로 결론을 짓곤 했다.

참 아픈 추억이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 되지 않아 혼자 학교 앞 신작로를 따라 하교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던 여객 버스가 갑자기 내 앞에 급정거를 했다. 어린 나는 깜짝 놀라 언덕 아래 소나무밭으로 나가떨어질 뻔했다.

그와 동시에 운전사와 조수가 뛰어 내려와 옥양목 천 뒤에 골판지를 대 만든 명찰을 낚아챈 채로 나를 교무실로 끌고 갔다. 그러더니 대뜸 내가 돌을 던져 차창을 깼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담임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변명의 틈조차 주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넌 퇴학이야!'라고 소리치셨다.

담임선생님 책상 위에 누님이 정성껏 만들어 주신 명찰만이 처량하게 뒤집혀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에게 퇴학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나는 며칠간 결석을 했고, 담임선생님의 왜 학교에 나오지 않았느냐는 다그침에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마 전, 시위를 하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순간 초등학교 때의 일이 뇌리를 스쳤다. 그때 나는 허기진 배를 채울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뿐이었고, 물대포를 맞은 농민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현장에 다른 농민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었다.

쓰러진 농민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가빠왔다. 나는 그때의 결석으로 6년 개근상을 받지 못해 못내 억울했다. 물대포를 맞은 농민은 그를 쓰러뜨린 집단에게서 진정한 사과와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엽엽하지 못한 일들이 판을 치니 길을 걸으면서도 혹시 자동차가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세상사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비정상이 고개를 쳐든다. 국민의 우상이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국민 세금으로 단련시킨 근육을 후배를 폭행하는 데 썼다.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은 해외까지 가서 도박을 하였다. 그들은 학생선수 시절 훈련비를 지원받으면서 성장하였고, 지금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이 사회에 부를 환원해서 과거의 베풂에 보답하여야 할 그들은 기부는 고사하고 배려마저 외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약한 자들의 주먹을 억지로 펴서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우리들은 가끔 '참 재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출발하는 그 배를 탔을까 하고 안타까워했다. 무차별 테러가 발생한 그 극장에 왜 그 시간에 관람을 했을까? 여러 대의 버스로 연수를 갔는데 그 버스만 굴러서 많은 이들이 운명을 달리해야 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재수로만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비정상이 판을 치는 세상,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재수로 돌리며 벙어리가 되어야 하고, '인지부조화의 원리'가 수시로 간섭하는 세상은 바른 위정(爲政)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상황에 맞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바꿔버리는' 몰염치한 위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 함께 희망가를 부를 수 있을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어서 재수 없는 날들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 행운이 넘치기를 원숭이띠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간곡히 염원해 본다. 그런데 문득 대학 때 자주 불렀던 김민기의 '친구'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재가동 안전 우려된다

10년 넘게 가동 중단 상태였던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관광열차(모노레일)가 재가동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운영 업체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안전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우려는 여전하다.

모노레일 회사 측은 최근 동구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7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일부 시설을 보수해 연말 3차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서도 첨부됐다. 그러나 동구청은 '편의시설 부족과 관련 서류 미흡'을 이유로 일단 반려한 상태다.

지난 1980년 설치된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은 1990년대 후반 경영난으로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 2005년 정식 폐업했다. 이어 지난해 영업 재개를 위해 안전검사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10년 넘게 야외에 방치된 탓에 시설과 부속물 부식 등 노후로 사고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동구청의 행정관리도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청은 그동안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믿음직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시설을 설치한 지 30년이 넘고 영업 변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주변 기초 시설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업체 측에 대해 동구청은 만일을 대비해 구조물 진단을 다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다. 같은 업체 소유로 지난달 추락사고가 발생한 리프트의 경우도 시설 개보수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공의 놀이시설들은 미심쩍다면 몇 번이라도 확인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동구청과 업체는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사전에 없애야 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 소외 해소할 길 없나

전남 지역 주민 10명 중 3명은 월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으며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2명은 빚을 내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엊그제 전남도가 22개 시·군 9536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2015년 생활 실태'에서 드러난 전남 도민의 팍팍한 삶의 모습이다. 열악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실 이 같은 수치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생산 기반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가구당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문화·레저 분야에서 극심한 소외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평생교육' 이용 실태를 묻는 질문에 76.8%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도민은 39.0%에 그쳤다.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인 영화 감상 역시 응답자의 52.3%만이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한 도민은 각각 22.4%, 15.6%에 그쳐 농어촌 지역의 문화 소외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케 한다.

물론 공연이나 전시 관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일이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의 '찾아가는 미술관'이나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 등을 확대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문화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고 작은 영화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부동산 투기

최근 중국에서 적발된 부패 관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돈을 탐했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부패 혐의로 체포된 장·차관급 고위 관료 16명이 받은 뇌물은 1인당 평균 31억 원 수준이었다. '중국석유'의 전 부총경리였던 왕융춘은 가장 많은 86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

둘째, 색을 지나치게 밝혔다. 중국 인터넷 매체인 '환구망'은 최근 "2012년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된 중국 고위 공무원 중 95%는 부인 외에 첩을 두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셋째, 부동산 그중에서도 집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했다. 충칭시 사법국장이었던 원창은 16채, 푸순시 순청구 국토국장이었던 뤄야핑은 29채를 갖고 있었다. 또 산시성 푸 현 석탄국장이었던 하오펑쥔은 무려 36채의 저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탐관오리들의 '부동산 사랑'은 유독 심했다. 명나라 11대 황제인 가정제(嘉靖帝) 재위 기간에 있었던 부패관료 엄숭의 부동산 사랑은 특히 유명하다. 가정 41년 어사인 추응룡이 엄숭을 매관매직으로 고발하자 가정제는 엄숭을 잡아들인 뒤 전 재산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엄숭은 저택과 별장·상가 등을 합쳐 장시성 한 곳에서만 무려 6600채가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베이징과 장쑤성 등지에도 수천 채를 갖고 있던 엄숭은 이후 '고금 이래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탐관오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사람은 많은데 살 만한 땅이 별로 없는 비좁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은 권력자나 부자들이 선호하는 대표 아이템이다. 그건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매번 장차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극히 일부인데다, 보유했다는 주택도 기껏해야(?) 서너 채 정도여서 중국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최근엔 세종시에서 취득세 감면 특혜를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일부 공무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중국의 부패 관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이오십보 소백보'(以五十步 笑百步)의 고사가 생각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